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전남 휴일 날씨 5(土) 맑은뒤구름많음 17/31℃ 6(日) 구름 조금 17/30℃

단기 4343년 (음력 4월 23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692호 1판 2010년 6월 5일 토요일

치열했던 선거 끝…이젠 일상으로

갈라진 민심 지역분열 안되게
앙금 털고 지역화합 합심해야

길고 치열했던 6·2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거리마다 귓전을 때리던 로고송과 플래카드 홍수도 사라졌고, 형형색색의 단체복을 입은 선거운동원도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돼 6개월간의 길고 긴 대장정이 마침내 끝이 났다.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여권과 민주당이 광주·전남에서 보여준 일당독점의 폐해를 표로 냉엄하게 심판한 유권자들은 다시 일상 생활로 다시 돌아가 분주한 모습이다. 각 후보들도 당락을 떠나 선거사무실 해단식을 하는 등 선거 마무리에 전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후보자 간 상호 비방과 지역 인사간 편가르기 등에 따른 상처가 커 극심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선거 후유증이 자칫 지역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선거가 모두 끝난 만큼 당선자는 이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민 간, 조직원 간 갈등의 골을 메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

선거로 갈가리 찢긴 민심을 승자가 아울러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화합을 위해 당선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당선자가 직접 나서 지역민들을 끌어안아야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과 각계 원로들은 현역 단체장이 바뀌었거나 선거전이 치열했던 지역에서는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하루빨리 이를 추슬러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낙선자들에 대해서도 선거과정에서 생겨난 앙금을 훌훌 털어버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당선자와 합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민의 화합이야말로 지역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민 간 그리고 후보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선 검찰과 경찰, 선관위가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법기관도 이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해 지역이 안정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숨죽이는 공직사회

단체장 바뀌는 광주·전남 지자체 술렁
다음달 인사 앞두고 '살생부' 나돌기도

6·2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단체장이 당선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당선이 유력하던 후보가 낙선한 지역이나, 마지막까지 경합이 벌어졌던 지역 등에서는 권력교체에 따른 후유증이 극심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공직자들은 새 단체장의 입성에 불안해하면서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 전남도지사와 전남도교육감을 포함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을 뽑은 광주·전남지역 31개 지자체 및 기관 가운데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단체장을 맞아들이는 곳은 42%인 13곳에 이른다.

권력의 수장이 바뀐 이들 지자체나 기관에서는 정기 인사철인 7월을 앞두고 '카더라 통신'을 통해 벌써 부터 '인사 살생부'가 돌아다니고 있다. 대부분의 소문은 "당선자 측이 기존 단체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주류 세력'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당선자 취임 후 이들을 '한직'으로 밀어내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또 "현직 단체장과 가까웠던 지역 내 유지들이 새 당선자에게 줄을 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말썽 많았던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강운태 당선자가 아닌 또 다른 후보에게 줄을 섰던 상당수 공직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당시 '당심이 쏠려있다'고 알려진 또 다른 후보에게 줄을 섰던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어서, 이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운 구청장이 입성하게 되는 광주 남구와 광산구에서도 대폭적인 고위직 물갈이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전·현직 시장이 맞붙어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김충석 전 여수시장이 현직을 꺾고 극적인 승리를 거둔 여수시의 경우 공직자들이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 예산지원을 핑계로 민원인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들에 대해 단호하게 인사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관련 공직자들이 숨을 죽이고 있다.

후보들 간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던 나주시와 장성군 등에서는 지난 3일 저녁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당선자 사무실에 인사를 갔다는 소문이 돌아 공직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현직 교육감이 충격적인 패배를 한 광주시교육청과 새로운 당선자가 들어서는 전남도 교육청에서도 고위직 인사 물갈이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새 교육감 당선자는 이른바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어서, 내부 인사는 물론 교육청 전체 시스템의 물갈이 폭이 상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행기·박진표기자 redplane@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미래의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젓새우 경매 북적 본격적인 젓새우잡이 철을 맞아 신안군 지도읍 송도위판장이 연일 경매로 북적거리고 있다. 신안 임자도·허사도 인근 수심 20~40m 해역에 서식하는 젓새우는 올 들어 저수온 현상으로 어획량이 감소, 1드럼(270㎏) 당 예년보다 20~30% 비싼 130만원대에 위판되고 있다.

/신안 지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민주당, 對與 공세 포문

4대강·세종시 등 'MB 정책' 제동 착수

민주당이 6·2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4대강과 세종시 등 이른바 'MB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 소속 인사가 진출한 지방 정부들과 공조 체제를 가동하고, 여기에 원내 투쟁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6월 국회에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 천안함 사태 및 '북풍'(北風) 논란 등을 쟁점화하며 대여 포문을 열 태세다. 즉각적인 4대강 사업 중단과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천안함 사태에 대해선 특위의 조속한 가동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는 한편 여권의 북풍 선거 악용 및 관권선거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스폰서 검사' 특검 추진을 고리로 검찰개혁의 고삐도 바짝 죄기로 했다. 내각 총사퇴와 천안함 사태 관련 책임자 문책 등 인책론도 집중 제기키로 했다.

이를 위해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 현안이 걸린 상임위에 전투력 있는 의원들을 대거 배치할 예정이다. 내주께 야4당 대표 회동을 계획하는 등 지방선거에서의 야권 단일화 성과를 토대로 야권내 대여 공동전선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조만간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을 갖고, 당 지도부와 지자체장간 협의체를 발족해 4대강 및 세종시 수정 저지, 무상급식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동보조를 맞춰 나간다는 복안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이 참여하는 연대기구 구성도 검토 중이다.

당 핵심인사는 4일 "지방권력 교체로 정권의 일방통행을 막을 추동력을 높이게 됐다"며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부합하도록 당력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일본 새 총리 간 나오토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63) 민주당 대표가 제94대 총리에 선출됐다.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선거를 통해 간 나오토 민주당 대표 겸 부총리를 새 총리로 지명했다.

이날 중의원 총리 투표에서 간 총리는 유효표 477표 가운데 과반이 훨씬 넘는 313표를 얻었고,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는 116표를 얻었다.

시민운동가 출신의 10선 중의원 의원인 간 총리는 7차례 당 대표에 도전해 이번까지 3차례 대표에 당선됐고 마침내 총리에 오른 집념과 인내의 정치인이다. 재수 끝에 도쿄대 공대에 입학했고, 3차례 떨어진 끝에 변리사시험에 합격했으며 국회의원 배지도 4수 끝에 달았다.

간 총리는 외교정책과 관련, "일미동맹의 기축인 미국과의 기존 신뢰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나로호 2차발사 준비 만전 ▶2면 'e테크' 이렇게 ▶4면 즐거운 패밀리 캠핑 ▶5면 '방자전'의 조여정 ▶7면 Books ▶8·9면 김진철교수의 실전골프 ▶15면